

# 예매 열차 운행중지에 '당혹'...부랴부랴 재예매 '발동동'

## 철도노조 파업 첫날 지역민 불편

“광주 송정발 순천행 15시 41분 열차가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행 중지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첫 날인 14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에서는 이날 운행 중지된 열차에 대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역사 곳곳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전광판에서 열차운행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역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철도노조의 총파업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14일 광주-전남에서는 열차 운행중지·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날 운행중지 공지 안내문자를 받고 표를 재예매한 이용객은 불편을 호소했다. 일부 시민은 “시민 발을 불모란 파업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에서 비료사업을 하는 이기현(52)씨는 서울에서 2주에 한 번 사업차 광주송정역을 방문하는 단골손님이다. 이씨는 지난 12일 밤 9시에 광주에 도착한 직후 15일 오전 11시 6분 복귀 열차를 예매했다.

하지만 파업 하루전인 13일 돌연 예매한 열차가 운행중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씨는 어쩔 수 없이 새 표를 재예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를 또 해야한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전예매했지만 미처 운행중지 안내문자를 보지 못한 열차 표를 재예매하지 못한 고령층도 있었다.

순천에서 온 김귀남(79)씨는 아내와 함께 광주

광주송정역 운행중지 안내 분주 불안한 이용객들 문의 잇따라 “안내문자 못 봐 중지 사실 몰라” “하마터면 약속 시간에 늦을 뻔” 뒤늦게 재예매 등 시민들 혼선

시서구 치평동에 있는 딸 집에 이틀간 머물고 귀가하기 위해 송정역을 방문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온라인 예매에 익숙한 딸을 통해 14일 오후 3시 41분 순천행 무궁화호를 예매했다.

하지만 미처 전날 운행중지 문자를 보지 못한 김씨는 송정역에 도착한 뒤에서야 예매한 열차가 운행중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른 열차 표를 재예매해야 했다.

김씨는 “오늘 총파업 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내가 예매한 열차가 운행중지 될 줄은 몰랐다”며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운행중지 사실을 몰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파업 때문에 예매한 열차가 운행중지 되지 않을까 발을 동풍구르는 승객도 많았다.

이날 오후 2시 10분께 송정역을 찾은 최희규(73)씨는 바로 매표소에 달려가 “오후 2시 20분 용산행 운행중지 안됐죠?”라고 물었다. 최씨는 “해당 열차는 운행중지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서야 한숨을 돌렸다.

뒤이어 도착한 승객들도 대부분 본인이 예매한 열차가 운행중지 또는 지연됐는지 역무원에게 확인했다. 역무원은 승차권 창구 앞에 게시된 ‘운행중지 열차 안내표’를 안내하는가 하면 직접 열차 시간표를 확인해 이용객의 질문에 답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첫날인 14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이동 통로 모니터에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것을 알리는 공지가 띄워져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역사내 전광판을 통해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하던 이성섭(47)씨는 오후 2시 58분 목포행 KTX 옆에 적힌 운행취소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목포행 2시 40분 열차를 예매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하마터면 새 표를 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시간도 지체될 뻔 했다”며 안도했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송정역 승차권 창구에서 1시간 가량 살펴본 결과 예매한 열차가 정상 운행되는지 묻는 이용객은 20여명이 넘었다.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 첫날이라 아직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업이 계속 이어지면 광주-전남의 산단에 물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4호 2교대 근무 시행 ▲노사 합의 이행 ▲호남선SRT 축소운영 철회 등을 요구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나섰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출산한 딸 방치 사망...20대 여성 항소심도 집유

### 발달장애 고려 등 원심판결 유지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숨지게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호)는 14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여·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여수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족 등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했다가 같이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

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직후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생명의 가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도 보호받아야 할 처지로, 사회시스템이나 가족의 역할이 부족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살아가다 보면 이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며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친척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도로 뛰어든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 무죄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북구청 인근 3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걸던 피해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자 도로에 뛰어 들었다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20여m를 앞두고 도로를 건너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A씨는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급제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착공 3년여 지연...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

건축주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나서야 건축부지에 잡석다짐을 하고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했다던 착공한 것으로 밝혀질까.

1심 재판부는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건축허가 취소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해 착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시 동구 운림동 개발제한구역내 토지(1172㎡)를 구입했다. 이 토지는 지난 2015년 4월 소유주들이 광주시 동구로부터 단독주택 건축허가(건축면적43.2㎡의 1층 경량 철골)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공사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동구에 건축·시공자 명의를 변경신고했고 2018년 동구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에도 착공이 미뤄지자 동구는 2021년 4월 A씨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26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의견제출 통보를 받고 이를 뒤 토지 잡석 깔기 공사를 했고, 29일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했다. A씨는 동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내리고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광주시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가 건축허가 취소를 막기 위해 사후적으로 급하게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2형정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행한 공사는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만 진행했다는 점에서 공사착수로 볼 수 없다”면서 “사전통지절차와 청문절차를 거치는 동안 진행된 A씨의 편법적인 착공 행위만으로 취소사유가 해소 된다고 본다면 건축법의 규정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